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9	.	.	.	9
신 문	9	.	.	.	9
TV(방송)
기 타

언론 보도 사항 목차

■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 실시	아시아 뉴스통신	.	1
2	화성소방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 실시	중부일보	.	2
3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발표	서울매일	.	3
4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중부일보	.	4
5	화성소방서,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화성 인터넷신문	.	5
6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경인매일	005	6
7	287건 발생, 전년 比 22%↓	서울매일	011	7
8	화성소방서, “상반기 화재 287건 22.2% 감소”	전국매일신문	012	8
9	“나의 히어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 가요”	경기일보	019	9

화성소방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0-07-23 17:52



이동식 소화수조 대응훈련.(사진제공=화성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23일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전용 송풍기를 이용해 3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며, 약 3만 4,000L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주요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화재 현장이나 동시다발 복합적인 화재가 발생한 상황, 대형 산불화재 등에 활용이 가능한 소방특수장비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이동식 소화수조 전개 및 활용 훈련 ▲무인방수파괴차 연동 재난 대응 훈련 ▲무인방수포 연동 재난대응 훈련 등 소화수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지속적으로 소방특수장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재난 유형별 전술 활용능력을 강화해 점점 다양화 되는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 실시

신창균 | 입력 2020.07.23 19:00 | 댓글 0



화성소방서는 23일 봉담읍 하가동리 소재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식 소화수조 활용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동식 소화수조는 전용 송풍기를 이용해 3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며 3만4천000L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주로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화재 현장이나 동시다발 복합적인 화재가 발생한 상황, 대형 산불화재 등에 활용이 가능한 소방특수장비이다.☒

☒

이날 훈련은 일반적인 현장대응 훈련과 이동식 소화수조 전개 및 활용 훈련, 무인방수파괴차 연동 재난 대응 훈련, 무인방수포 연동 재난대응 훈련 등 소화수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

화성소방서는 119센터별로 순차적으로 소화수조 대응 훈련을 실시해 재난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다른 소방특수장비를 활용한 유형별 특수재난대응훈련 실시할 예정이다.☒

☒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소방특수장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재난 유형별 전술 활용능력을 강화해 점점 다양화 되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신창균기자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발표

2020년 07월 23일(목)

국승우 ✉ shilbo@naver.com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장기적인 재난예방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질서 준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해 배포했다.

화성소방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19/369건) 대비 22.2%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3 부상15)으로 전년(19/14건) 대비 28%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14.55억원으로 전년(19/167.40억원)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5명) 대비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가 15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명 증가했는데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33.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성숙된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2019년 상반기와 대비해 22%(88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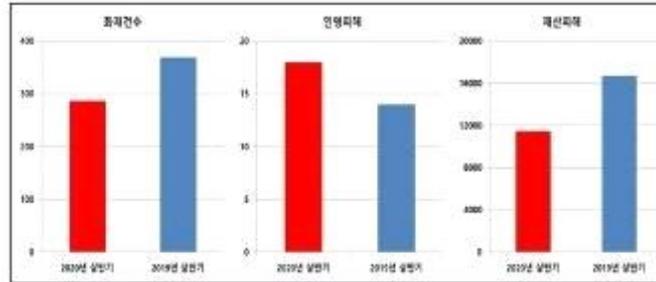
실제로 담배꽂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34.5%(38건)로 분석돼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꽂초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와 생활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재를 감소시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 신장균 | © 입력 2020.07.23 17:07 | ■ 댓글 0



연도별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2020년(1~6월)		287	18	3	15	11,455
2019년(1~6월)		369	14	5	9	16,740
전년 대비	건수	82▼	4▲	2▼	6▲	5,285▼
	비율 (%)	22.2▼	28.5▲	40▼	66.6▲	31.5▼

화성소방서는 장기적인 재난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질서 준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2019년 369건 대비 22.2%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 3, 부상 15)으로 2019년 14건 대비 28%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14억5천500만원으로 2019년 167억4천만원 대비 31.5% 감소했다.☒

☒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 5명 대비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5명으로 전년 9명 대비 6명 증가했으며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33.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화재 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2019년 상반기와 대비해 22%(88건) 감소했으나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고 담배공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34.5%(38건)로 분석됐다.☒

☒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공초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중이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장균기자

화성소방서,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일력 2020/07/23 [11:04]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 박주희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장기적인 재난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자율적인안전질서 준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19/369건) 대비 22.2%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 3, 부상 15)으로 전년('19/14건) 대비 28%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14.66억원으로 전년('19/167.40억원) 대비 31.5% 감소하였다.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6명) 대비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5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명 증가했다.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33.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요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2019년 상반기와 대비해 22%(8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율이 높다. 그중에서도 담배꽂이에 의한 부주의화재가 34.5%(38건)로 분석됐다.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꽂이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을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와 생활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를 감소시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배포



화성소방서는 장기적인 재난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질서 준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2019년 369건) 대비 22.2%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3, 부상15)으로 전년(2019년 14건) 대비 28% 증가했으며, 재산피해

는 114.55억원으로 전년(2019년 167.40억원) 대비 31.5% 감소하였다.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5명) 대비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5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명 증가했다.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33.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2019년 상반기와 대비해 22%(88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다. 그중에서도 담배꽂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34.5%(38건)로 분석됐다.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꽂초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와 생활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를 감소시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최규복기자
news114@kmaeil.com

서울매일

화성소방서, 2020년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 자료 발표

287건 발생, 전년 比 22% ↓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장기적인 재난예방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질서 준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해 배포했다.

화성소방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19/369건) 대비 22.2%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3 부상15)으로 전년(19/14건) 대비 28%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14.55억원으로 전년(19/167.40억원)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5명) 대비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가 15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명 증가했는데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33.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011면 사회

했는데 성숙된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2019년 상반기와 대비해 22%(88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담배꽂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34.5%(38건)로 분석돼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명피해와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꽂초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와 생활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재를 감소시키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상반기 화재 287건 22.2% 감소”

경기 화성소방서는 장기적인 재난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화재 발생통계 현황을 분석·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69건)에 비해 22.2%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18명(사망 3, 부상 15)으로 전년(14건)에 비해 28%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114억 5500만 원으로, 전년(167억 4000만 원)에 비해 31.5% 감소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총 18명 중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5명)에 비해 2명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5명으로 전년에 비해 6명 증가한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사상자가 6명(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8.3%(110건)로 화재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8건(22%)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재발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중 담배꽂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38건(34.5%)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인 중 담배꽂초 무단 투척,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중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와 생활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나의 히어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 가요”

화성 도이초 1학년, 소방서·보건소에 손편지

화성 도이초등학교(교장 양해남) 1학년 학생들이 쓴 마음이 담긴 손편지가 코로나19로 일선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학년 학생 131명은 수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음을 배웠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화성 소방서와 보건소의 관계자들

에게 손편지를 쓰고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한 손편지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 힘든 기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적혀 있었다.

양해남 교장은 “학생들의 감사편지가 애쓰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도이초 교사 김봉수